

<글말교실 소감문>

저는 제대로 된 보고서 쓰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걸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님께 메일로 여쭙보아야 했는데, 개인 과제 보고서를 메일로 여쭙보는 것은 꺼려졌었습니다. 하지만 글말교실을 통해 글쓰기 담당 교수님과 처음으로 줌에서 1:1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인지라 담당 교수님과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어려웠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교수님과 가벼운 대화라도 나눌 수 있어서 신입생인 저에게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zoom 피드백 과정에서는 교수님께서 미리 제 글을 꼼꼼히 읽고 오신 후에, 제가 잘 쓴 부분을 먼저 칭찬해주셨습니다. 칭찬을 먼저 받고,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썼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등을 상세하게 피드백 해주셔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개인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처를 남기기 위해 각주를 다는 글쓰기는 생전 처음 접해본 것이어서 글을 쓰기 전부터 막막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영상들을 여러 번 돌려보고, 각종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아도 헛갈리고, 어떤 것이 틀렸는지도 몰라서 수정 방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 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글을 쓰고나서도 점수가 깎일까봐 쉽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글말교실이 다시 한번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글말교실을 신청한 후에 완성했던 보고서를 교수님께 이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메일 확인도 빠르게 해주셔서 다음날 바로 피드백 이메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드백 이메일을 보면서 하나하나 수정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글말교실의 장점 중 하나는 교수님과 직접 소통을 하여 보고서의 종류에 따라 zoom이나 이메일 중 보다 나은 피드백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코칭 받았던 교수님에 따라 느낀 아쉬움이나 만족도가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글말교실 코칭을 총 세 번 받는 동안 아쉬움을 느낀 적은 전혀 없었고, 큰 만족도를 느꼈습니다. 오히려 이 좋은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글말교실 덕분에 글쓰기 수업 과제에 큰 도움을 받았기에 글쓰기 과제로 고민하고 있는 제 주변 동기들에게 글말교실을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글말교실? 그게 뭐야?" 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글말교실을 교수님께서 e-campus에서 직접 홍보하신 것을 보고 저는 글말교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을 보인 일부 사람들도 그 홍보 게시글을 읽어보면, 글말교실이 어떤 교실이라는 것은 잘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말교실의 장점을 잘 알릴 수 있도록 글말교실이 진행되는 과정을 짧게라도 제작해서 홍보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나도 한 번 신청해볼까?" 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의 참여도를 이끄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